

전남 공직기강 해이... 음주운전 징계 '전국 2위'

2024 국감

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지난해 51건 달해... 경기 이어 최다 최근 5년새 증가세... 성비위도 많아 박정현 "윤리교육 등 예방 강화해야"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많아 공직 책임감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및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총 153명의 공무원

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비위 행위로 총 4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강등 7명, 정직 37명, 감봉 50명, 견책 5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는 총 51건으로, 67건을 기록한 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로 인한 징계 수위는 해임 1명, 강등 5명, 정직 26명, 감봉 19명이었다. 특히 전남지역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 34건에서 2020년 48건, 2021년 49건, 2022년 5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2년에도 경기 73건, 전남 54건으로, 전남지역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역시 경기와 전남 모두 4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지역에서는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또한 9명을 기록했다.

이 중 2명은 성매매로, 5명은 성희롱, 2명은 성폭력으로 각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계 순위는 강등 1명, 감봉 4명, 견책 4명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순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비위 등의 징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 또한 중요하나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권향엽 "중기부 우수 창업기업 지원, 수도권 편중 심각"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사천)은 10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틱스(TIPS) 운영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전남은 단 1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틱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3개 운영사 중 69.9%(86개사)가 수도권에, 30.1%(32개사)는 비수도권에 있다. 전남을 비롯해 세종·충북·울산·제주는 각각 1곳에 불과했다. 틱스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사인 틱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틱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민간투자 1억원, R&D 정부출연금 5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2013년 틱스 프로그램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전남의 틱스 선정 기업은 단 1곳뿐"이라며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기후 대응담 후보지 동북천 문화재 '나몰라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사천)은 10일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담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화순 동북천 등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에 대해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 대응담 계획'과 함께 화순 등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없었고, 국가유산청도



요청하지 않았다. 담 건설 후보지 14곳의 행정구역 일원에는 30여건의 멸종위기종 서식 및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다. 조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며 "시급히 담 건설 후보 지역 인근 문화재 실재 파악과 안전한 보전 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허정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10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립의대 설립방식 설명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국립의대설립 범도민추진위 "통합의대 지지"

"통합의대 정부 정책 부합" 성명 김 지사 "양 대학 통합 물꼬 트여"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10일 전남도 주관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대상 국립의대 설립방식 설명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역 상생과 화합을 위한 양 대학의 통합의대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생·화합으로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범도민추진위원회 허정·이주희·주

상윤 공동위원장, 최순모 고문, 박종 집행위원장 등 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 대학에서 대학통합을 진정성있게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통합은 양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대 설립을 위해 한결 같이 응원하고 지지해준 범추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양 대학이 모두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며 "대학을 통합하면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의과대학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국립의대를 유치할 확실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추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11월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이순신장군 순례길 걷다

다양한 기념품과 푸짐한 간식

출발시간 매주 오전 10시

EVENT 1 QR 사전접수 시 혜택
인수플리드스트랩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업, 산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여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플리드 스트랩 백을 헤드웨어!

EVENT 2 행사 당일 무료 증정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방법은? 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짐이서 버킷햇 전원 증정!

EVENT 3 완보자들을 위한 간식 증정
걸음정에 도착 하시면 푸짐한 간식들을 드려요!
* 반드시 접수 따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전남남도 Jeollanamdo

주관 협회 관광재단 Jeollanamdo Tourism Organization

해남 10월 12일(토) 8KM, 고흥 10월 19일(토) 7.9KM
순천 10월 26일(토) 10.7KM, 여수 11월 2일(토) 7.3KM
광양 11월 9일(토) 7.3KM, 남해 11월 16일(토) 7.6KM

해남(남창사거리), 고흥(말영농협주지소)
순천(부용교사거리), 여수(여수EXPO국제관)
광양(중동근린공원), 남해(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의 삶을 되새기며 감동을 느껴보세요.
02-6747-8214